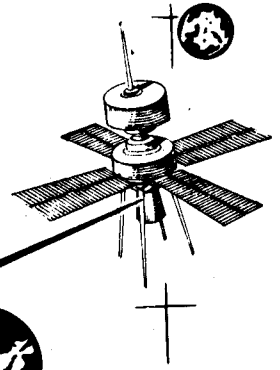


양  
계

# 안테나



南斗熙  
본지 편집부장

## 양계업 소득표준을 인하

'87년도 채란양계업 소득표준율이 전년대비 10% 정도가 인하된 6.5%로 결정되었다.

본회에서는 '87년도 채란양계업이 수년간 계속된 불황의 연속으로 연간 생산비 45원에 미치지 못하는 39원선에서 거래돼 연중 14%의 적자를 본데다가 국제곡물시세의 양등으로 사료가 인상, 질병의 만연 등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국세청에 소득표준율을 영세율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여 이번엔 인하조정된 것이다.

본회는 지난 87년초 양계업을 채란·육계로 구분하고 86년도 채란업 소득표준율을 9%에서 20% 하향 조정된 7.2%로 인하시킨바 있으며, 87년도에는 육계 소득표준율을 역시 20% 낮은 7.2%로 낮추도록 작용하였다.

이로서 본회는 연 3년 동안 양계업의 소득표준율을 계속적으로 인하시켜 양계농가 경영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금년도 소득표준율 인하는 정부의 세수확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민보호차원에서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본회와 각 도지부에서 건의서를 국세청 및 관계요로에 제출하고 각 지역계우회에서 연명으로 채란농가의 어려움을 피력한데다 협회장 등 집행부의 끈질긴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국회의원, 농림수산부 차관, 재무부 차관보, 국세청 관계자, 민정당 전문위원 등이 작업을 위해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양계협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전국의 양계인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공동의 한 목소리를 낸다면 더 큰 어려움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협회 육계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육계업계가 단합된 것이나 채란분과도, 권회, 계우회연합회가 한 사무실 사용 움직임 모두는 양계업 발전을

위한 고무적인 일로 양계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매우 잘된 일이라 생각된다.

양계업계에는 생산성 향상, 농장기계화, 유통개선, 자조금제도도입, 수입개방 대처, 세계개선, 부가세철폐, 세율인하 등 산재한 문제가 많다. 이는 양계인이 협회를 중심으로 한 목소리를 낼 때 쉽게 해결될 것이다. 전국 양계인의 단합을 호소한다.

## 계란품질 소비자 관심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수년간의 극심한 불황과 국제곡물시세 상승으로 사료값 인상, 질병만연(ND), 후보계 육성 미비 등에 기인한 체란계 보유수 감소로 계란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 모처럼 4~5년만에 6개월 이상 장기적인 호황을 지속하고 있어 체란양계인의 의욕을 북돋아 주고 있다.

행락철로 연중 계란소비가 가장 높은 4월에 들어 계란값의 강세는 더 지속될 전망이다. 각 계우회는 항상 희색이 만연하고 대화중에 염려가 있다면 언제 정상(?) 가격으로 환원될 것인가, 이리다 수입계란이 들어오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뒷쪽에서는 고스톱 기준이 점당 천원에서 2천원으로 오르고, 새차를 개비하는 등 부산을 떠든다.

소비자들도 계란값이 그동안 너무 싸다는데는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다. 협회 홍보실에서 만나본 일간지, 월간지 식품담당 기자들, 국민학교 교사, 주부 등이 이구동성으로 계란이 그 영양적 우수성에 비해 값이 너무 싸다고 전한다.

그동안 소비자 관심밖의 계란이 최근 경제당국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관심의 대상 품목으로 부상함에 따라 위생적인 유통난좌가 필요하다고 일간매스컴의

초점이 되고 있다. 가격은 물론 위생문제에 대한 문의가 심심치않고 노골적인 불만도 섞여 나오고 있다.

수년전 전염성후두기관염(ILT) 만연시 소독약냄새 파동이 재연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당시 소비자단체에서 계란에서 소독약 냄새, 지저분한 난좌(계란이 깨져 난좌에서 구더기가 올라왔다), 똥·피 묻은 계란의 사진과 샘플을 보이고 세균수 실험데이터를 제시해 매스컴의 관심과 함께 생산자단체 관계자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계란값에 큰 영향을 준 바 있었다.

전체 체란양계인은 모두 계란값 시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그러나 나 혼자만 잘한다고 개선될 일도 아니고 전양계인이 합심해 해결해야 할 일이다 보니 말만 무성하다. 전체의 일은 그 누구의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소비자 없는 생산은 무의미하다. 소비자가 외면하면 현재 계란의 정상가격을 더 오래 지탱해 나가는 데 문제가 크다. 업계 일각에서 계란의 상품성 문제에 대한 염려와 함께 위생적인 계란생산을 위하여 농장의 위생상태 점검, GP 란의 유통, 농장 또는 단지별로 고유상표의 표시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루 아침에 어려울 지는 몰라도 여름철이 오기전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한다. 적어도 시중에 유통되는 가정용 계란만이라도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자. 껍질을 깨서<sup>1</sup>이용하는 가공용 또는 대량소비처 계란 보다 가정용 유통란에 위생적인 상품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농장에서 선별에 철저를 기하고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유통체계를 도입을 위하여 용도별로 구분하여 계란을 출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업계가 염려하는 난좌의 개선문제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자. 위생적인 일회용 난좌 사용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야 하겠다.

현재 수입개방화로 외국의 코팅된 식란이 우리 시장을 넘보고 있다. 중국의 신선한 계란이 하루면 우리 서해안에 도착할 수도 있다. 만일 제3국이 중국에 현지투자자로 생산해 우리시장을 노크한다면 대책이 없지 않는가. (미국 계란 생산비 30~35원 추정) 전양계인이 단합해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급선의 과제이다.

농장에서는 기계화, 성력화를 통해 생산비를 더 떨어뜨리고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 이하로 생산해 낼 수 있는 방안모색에 심혈을 기울이자. 상품성에 대한 양축가의 배전의 노력을 기대한다.

## 약추(弱雛)와 무허가 부화장 근절

작년 하반기 이후 양계산물 시세가 급등하면서 육계·산란계 공히 병아리값이 치솟게 되고 일반 양계장에서 병아리 입추가 상당히 어렵게 되었다. 주문은 많고 생산되는 병아리는 한정되다 보니 부화장 입장이 곤혹스럽게 되었다. 그 여파인지는 몰라도 최근 양계인들 모임에서는 불량 병아리 문제가 큰 화제거리로 오르내리고 있다.

계우회 모임에서는 입추병아리에 3~5%가 전형적인 약추(弱雛)로 입추 즉시 폐사하거나 심한경우 10%까지도 약추가 발생한다고 호소하며 대책 강구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일반 채란농가의 경우 고난가시대에 후보육성계 확보가 쉽지 않아 더욱 피해가 높아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대체로 오지에서 계우회 등과 연결이 되지 않는 농장에서 자주 양계인 모임에 참석치 못하는 산란농가에서 병아리 구입에 급급하다 모처럼 어렵게 구한 병아리에서 극심한 약추율을 볼 수 있다한

다. 사기성(?)에 가까운 일본 하루살이성 중추업자가 생산한 중추사육 병아리도 계속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육계농가에서도 피해는 만만치 않아 일명 왕병아리로 불리는 불량추가 많이 나돌고 있다. 갈색산란계 암컷에 육계종계나 검용종, 일반육계병아리 수컷 등으로 무등록 종계장이나 무허가 부화장에서 적당히 생산해서 싼값에 숫자만 채워 분양해 정보가 어두운 육계업자나 삼계용 병아리 생산업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특히 삼계용 병아리가 다량 생산되는 전남 등 남부지역의 왕병아리는 서울 삼계탕 시장을 상당히 교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처럼 국제적인 보신식품으로 동남아지역에 인기리에 수출되고 있는 삼계탕 수출산업에 혹여 영향이나 없을까 염려스럽다.

경제성이 낮아 사료낭비 등 국가경제 차원에서 큰 문제지만 허가부화장의 발전 저해요소이며 육계·채란계 산업의 암적요소인 무등록종계 무허가부화장 문제가 효율적으로 정리되어야만 하겠다.

양축가들은 건전한 사업을 하고 있는 인가된 종계장이나 부화장을 거래하여야 하고 가능하면 단지별로 집단적으로 몇개 부화장을 지속적으로 거래해 일시적인 불순한 쓰내기 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물론 싼것만을 찾다 화를 자처하는 양축가의 의식도 사라져야 한다.

양계협회에서는 4월 중순부터 금년말까지 지속적으로 무허가부화장 및 미등록종계장 고발(신고)센타를 설치해 불량병아리생산을 근절시켜 건전한 초생추 유통질서 확립으로 수급조절의 효율을 기하고 법에 의해 등록 허가된 종계장 부화장을 보호 육성해 나가 양축농가의 피해방지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참고로 신고(고발)대상은 △무허가 부화장 △미등록 종계장 △미검정 종계, 유효기간이 경과한 종계 보유자 △검정을 받지않은 종계생산 종란유통자 △계통보증서가 없는 불량초생추 공급자 등이다. **양계**